



조막손 투수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리광푸 글 / 최정인 그림 / 강영희 옮김



표지 탐색하기

<조막손 투수> 책을 읽기 전에 책의 앞뒤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 이책의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야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아창.

㉠아창의 꿈은 오로지 하나! 유명한 투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창에게는 한 가지, 아주 작은 문제가 있는데.....

야구 글러브를 낄 수 없는 오른손이 바로 그것이다.

㉡아창은 과연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주는 투수가 될 수 있을까?

1)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은 무엇인가요?

2) '조막손'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윗글에서 찾아 표시해 보세요.

3) '조막손'의 낱말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쓰세요.

⇨

4) 책의 제목 '조막손 투수'와 책 표지 그림, 그리고 뒤표지에 쓰인 윗글을 종합해볼 때,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것 같은가요?

⇨

5) 밑줄 친 ㉡의 물음에 대한 답을 예상하여 써 보세요.

⇨



조막손 투수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리광푸 글 / 최정인 그림 / 강영희 옮김



어휘력 쑥쑥 키우기

1) ‘야구’와 관련된 낱말의 뜻을 보고, 해당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보기] 투수 타격 태그 포수 직구 삼진

낱말의 뜻	낱말
① 투수가 던진 공을 배트로 치는 일.	
② 타자가 세 번의 스트라이크로 아웃되는 일.	
③ 본루를 지키며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는 선수.	
④ 투수가 변화를 주지 아니하고 직선같이 곧게 던지는 공.	
⑤ 내야의 중앙에 위치한 마운드에서 상대편의 타자가 칠 공을 포수를 향하여 던지는 선수.	
⑥ 야수(野手)가 손이나 글러브로 공을 잡은 다음 몸을 누(壘)에 대는 일. 또는 공이나 글러브를 주자에게 대는 일.	

2) 다음 중 아래 [보기]의 밑줄 친 ‘팔다’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 것을 고르세요.

[보기] 책가방이랑 신주머니는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야구부 훈련을 쳐다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 ① 갓난아이를 파는 행위는 범죄이다.
- ② 어머니는 가게에서 쌀을 팔아 오셨다.
- ③ 서점 주인은 학생들에게 책을 팔았다.
- ④ 수업 시간에 어디다 한눈 팔고 있는 거니?
- ⑤ 아무리 다급해도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된다.



조막손 투수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리광푸 글 / 최정인 그림 / 강영희 옮김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 <조막손 투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맞아. 중학생인 나도 네 공을 못 쳤잖아. 조금만 변화를 준다면 틀림없이 넌 더 대단해질 거야.” / 형이 아빠 말에 ㉠()을 맞췄다.

· 당연히 공을 주고받는 데는 서로 ㉡()이 척척 잘 맞는다.

(나) · 틀림없이 엄마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때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는 것이 제일 좋다. 말을 적게 하면 심중팔구 조용히 넘어가게 되어 있다.

· “너도 네가 글러브를 낄 수 없다는 걸 잘 알잖니. 야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그러면서도 일부러 하려고 하더니…….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다) 아창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아빠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1) 다음에 제시된 관용적 표현의 뜻을 참고하여 (가)의 밑줄 친 ㉠, ㉡의 각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넣으세요.

㉠의 뜻	남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말이나 행동을 하다.
㉡의 뜻	서로 뜻이 맞다.

2) 다음 뜻을 지닌 한자 성어를 (나)에서 각각 찾아 쓰세요.

①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거나 거의 틀림없음. ⇨ ()

②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 ⇨ ()

3) (다)의 밑줄 친 속담이 지닌 뜻을 써 보세요.

⇨



조막손 투수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리광푸 글 / 최정인 그림 / 강영희 옮김



‘나’(아창)의 처지

다음 <조막손 투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토록 야구를 좋아한다면 아창도 야구부에 들어가 보란 듯이 훈련하면 되지 않는가? 당연한 생각이다. 아창 또한 그것을 왜 꿈꾸지 않았으며 시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아주 작은 문제 한 가지가 있다. 아창은 그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토록 바라던 야구부원이 될 수 없었다.

(나) “제 왼손으로는…… 할 수 있어요. 전 보통 때…… 꾸준히 공 던지기를 연습했거든요.”

㉢감독님이 아창의 오른손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넌 말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감독님! 전……” / 아창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감독님은 아창에게 더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 아창은 왼손잡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오른손 손바닥이 오그라들어 오른손이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아창의 오른손은 꼭 무슨 갈고리 같았다. 오른손으로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니 야구 방망이는 당연히 질 수 없었고 글러브를 끼고 공을 받는 것은 꿈조차 못 꿴다. 아창에게 야구부에 들어갈 기회가 오지 못한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

1) (가)의 밑줄 친 ㉠, ㉡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다)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써 보세요.

⇒

2) (나)의 밑줄 친 ㉢, ㉣에 드러난 ‘감독님’의 태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해 보세요.

⇒



조막손 투수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리광푸 글 / 최정인 그림 / 강영희 옮김



야구부에 들어가게 된 ‘나’(아창)

다음 <조막손 투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응. 감독님은 이제 타격과 수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으신가 봐.” / 샐오팡이 말했다. / “뭔데?” / “투수가 부족해. 투수가 세 명뿐이야. 다웨이와 원광은 제 몫을 충분히 하지만, 사실 샐오마오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특히 우리 야구부에는 좌완 투수가 한 명도 없잖아.”

(나) “내가 말이야…… 좌완 투수잖아. 네가 보기에 난…… 어때?” / “너…….”

샐오팡이 아창의 왼손을 바라보다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다.

“맞아, 네가 바로 좌완 투수였지? 게다가 넌 꽤 괜찮게 던지잖아. 다웨이를 따라잡긴 어렵겠지만, 원광이나 샐오마오보다는 네가 더 잘 던진다고. 아창, 내일 내가 감독님한테 말해 볼까? 감독님한테 널 야구부에 들이자고 부탁하는 거야. 어때?”

(다) “난 다른 사람보다 출발이 늦었잖아. 훨씬 많이 뒤쳐진 데다 오른손까지 불편하고. 수비는 연습조차 못하고, 타격도 별로고 말이야.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된 연습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 던지기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기를 쓰고 공을 던져서 시합에 나갈 기회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야구부에 들어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1) (나)에서 ‘나’(아창)가 야구부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조건] ㉠이 가리키는 바와 (나)에 ‘나’의 신체적 조건을 가리키는 낱말을 포함하여 쓸 것.

⇒

2) 여러분이 ‘나’(아창)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대하는 ‘나’(아창)의 태도와 자신의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해 보세요.

⇒



초막손 투수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리광푸 글 / 최정인 그림 / 강영희 옮김



꿈을 향해 도전하는 ‘나’(아창)_1

다음 <초막손 투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만약 상대가 공을 자신 쪽으로 치면 손에 글러브를 낄 수 없는 아창은 공을 받을 재간이 없다. 그러면 걸핏하면 안타로 이어지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마운드에 설 기회조차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아창은 이것을 이겨 낼 방법을 꼭 찾아만 한다.

아창은 한참을 생각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맨손으로 공을 받는 것이다. (나)

㉠'감독님이 날 불렀어. 날 경기에 내보내시려나?'

아창은 즉시 모자를 눌러쓰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다음 최대한 빨리 감독님에게 뛰어갔다.

"㉡바닥에 있는 헬멧과 방망이를 가지런히 정리해 놔. 경기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장비 챙기는 거라도 해야지. 옆에서 경기만 보고 있지 말고." / 감독님이 말했다.

1) 윗글에서 ‘나’(아창)는 마운드에 서기 위해 자신에게 오는 땅볼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나’(아창)가 생각한 방법은 무엇인지 윗글을 참고하여 써 보세요.

⇒

2) 밑줄 친 부분 ㉠과 ㉡에 드러난 ‘나’(아창)의 심경 변화를 다음 [조건]에 맞게 서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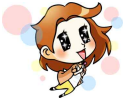
[조건] ㉠과 ㉡ 각각에 드러난 ‘나’(아창)의 심정을 표현하는 낱말을 모두 포함하여 쓸 것.

⇒



조막손 투수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리광푸 글 / 최정인 그림 / 강영희 옮김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다잡는 ‘나’(아창)

다음 <조막손 투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먼저 ㉠글러브를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공을 던진 다음 즉시 왼손으로 글러브를 끼고 수비 자세를 취하는 거야. 그러고는 포수가 던진 공이든, 타자가 쳐서 날아온 공이 든지 다 글로브로 받아 내었지. 그런 다음…….”

아빠가 말하면서 손짓으로 해 보였다.

“와,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기동 투수가 됐군요!” / 아창이 감탄하며 말했다.

“맞아, 넌 그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깐 힘내! 너도 언젠가 타이완 프로야구에서 짐 에보트처럼 조막손 투수가 될지 누가 알겠어.”

(나) “이제부터 새로운 투구법을 연습할 거야.” / 아창이 말했다.

“새로운 투구법?” / 아창은 짐 에보트가 어떻게 공을 던지는지 샤페오에게 말해 주었다.

(다) 짐 에보트 역시 그토록 찬란한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렇다면 아창 자신도 절대로 그에게 질 수 없다. 아창은 공을 던지고 또 던졌다.

1) (가)의 밑줄 친 ㉠에서 설명한 방법을 일컫는 말을 (나)에서 찾아 쓰세요.

⇒

2) ‘나’(아창)는 ‘감독님’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꿈을 향해 다시 노력하려고 합니다. ‘나’(아창)가 이렇게 마음 먹은 이유는 무엇인지 (가)~(다)에서 파악하여 써 보세요.

⇒



조막손 투수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리광푸 글 / 최정인 그림 / 강영희 옮김



‘감독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나’(아창)

다음 <조막손 투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 아무것도 아니에요.” / 아창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널 시합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날 원망하고 있잖아. 안 그래?”

아창은 깜짝 놀랐다.

‘내 생각을 감독님이 어떻게 아셨지?’

(나)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아창은 경기 때의 장면 하나하나를 떠올렸다. 샐로팡이 자신에게 해 준 말이 떠오르자 감독님의 의도가 생각났다. 자신이 다칠까 봐, 구원투수, 대신 치게.....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감독님의 세심한 배려였다. 감독님은 겉모습은 엄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였다. 아창은 그것도 모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독님이 자신을 겨우 볼 보이거나 시킨다고 원망하지 않았던가.

1) 감독님에 대한 ‘나’(아창)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을 (나)에서 찾아 쓰세요.

⇨

2) (가)~(나)에 드러난 ‘감독님’과 ‘나’의 갈등 양상을 정리해 봅시다. [조건]에 맞추어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 보세요.

[조건] (가)를 참고하여 갈등 원인을, (나)를 참고하여 갈등 해소를 쓸 것.

갈등 원인	갈등 해소



조막손 투수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리광푸 글 / 최정인 그림 / 강영희 옮김



꿈을 향해 도전하는 '나'(아창)_2

다음 <조막손 투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앞으로 현(縣) 전체 준결승과 결승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해내 감독님에게 신뢰를 주는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합에 나가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계속 잡을 것이다. 전국 결승에서도 반드시 투수로 설 것이다.

오래지 않은 미래에는 자신도 프로야구 팀에 들어가 타이완 프로야구의 '조막손 투수'로 야구 무대에 서서 크게 빛을 낼 것이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조막손 투수'가 그 대단한 명성을 혼자서 다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1) 이 책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조막손 투수 '나'(아창)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해 보세요.

2)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나'(아창)의 모습에서 어떤 점을 느끼고 깨달았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글, 그림, 만화 등 여러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조막손 투수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리광푸 글 / 최정인 그림 / 강영희 옮김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예시답안) 1) 유명한 투수가 되는 것 2) 야구 글러브를 낄 수 없는 오른손 3)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손 4) 유명한 투수가 되는 것이 꿈인 '아창'이라는 아이가 오른손이 조막손인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일 것 같다. 5) 조막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피나는 노력 끝에 훌륭한 투수가 될 것 같다.
2쪽	1) ① : 타격, ② : 삼진, ③ : 포수, ④ : 직구, ⑤ : 투수, ⑥ : 태그 2) ④
3쪽	1) ㉗ : 장단, ㉘ : 죽 2) ① : 십중팔구, ② : 자업자득 3)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쪽	1) '나'(아창)의 오른손 손바닥이 오그라들어 오른손이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 2) (예시답안) '나'(아창)의 겉모습만 보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감독님'의 태도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편견이기 때문에 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5쪽	1) 야구부에 좌완 투수가 없는데 '나'(아창)가 좌완 투수였기 때문이다. 2) (예시답안) 아창은 다른 사람보다 야구를 늦게 시작했고, 오른손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나'(아창)의 처지였다면 꿈을 이루는 현실의 제약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 좌절하고 쉽게 포기했을 것 같다.
6쪽	1) 맨손으로 공을 받는 것 2) (예시답안) '나'(아창)는 ㉗에서 감독님이 자신을 경기에 내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대감을 지녔으나, 장비를 챙기라는 ㉘의 말을 듣고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7쪽	1) 새로운 투구법 2) '나'(아창)는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짐 에보트'도 부단한 노력 끝에 꿈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8쪽	1) 겉모습은 엄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 2) • 갈등 원인 : '아창'은 '감독님'이 자신을 시합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원망함. • 갈등 해소 : '아창'은 자신을 향한 '감독님'의 세심한 배려를 알고 나서 마음이 풀림.
9쪽	1) (예시답안) 조막손 투수 '아창'에게! 아창, 너는 정말 훌륭한 투수야.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는 네 모습을 보니 전국 결승에서도 반드시 투수로 설 수 있을 것 같아. 네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꼭 보여 줘! - 너를 응원하는 ○○가 2) (예시답안)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포기할까 했다. 그런데 조막손인 '아창'도 부단한 노력 끝에 야구부에 들어갔고 더 나은 투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창'의 모습을 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든 현실적인 어려움이든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